



## 5·18 때 코브라 헬기 2대 출동 벌컨포 최소 1000발 이상 쏘았다

103항공대장 “22일 500발씩 신고 출동...1500발 추가 지급 받아  
 22일 광주천 따라 사격·24일 11공수 여단장이 폭도 향해 쏘라 지시”  
 5·18재단, ‘벌컨포 운용’ 등 軍 문서 통해 확인...탄피 6점도 공개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공격용 코브라헬기(AH-1J) 2대가 시민 진압 등 작전 과정에서 벌컨포를 최소 1000발 이상 무차별 사격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관련기사 6면>

5·18기념재단은 최근 추가로 시민에게 기증받은 벌컨포 탄피와 군(軍) 문서 등을 제시하며 당시 광주로 급파된 코브라 헬기의 기종소사 의혹을 기정사실화했다.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7대의 코브라 헬기가 장착한 20mm벌컨(포)은 살상반경 2m로 ‘정갑차 잡는’ 최신티살상 무기였다.

23일 5·18기념재단이 ‘5·18 당시 코브라 헬기가 20mm벌컨포로 최소 1000발 이상 사격했다’고 기정사실화한 근거는 계엄군에 지급된 탄약 현황을 기록한 전투명령과 교육사령부(전교사) 문서, 운용부대 지휘관 진술, 육군항공감찰 문서, 최근 잇따라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벌컨포 탄피 6점 등 여럿이다.

우선 코브라 헬기가 광주에 투입됐던 사실은 육군항공감찰실이 작성한 광주지역작전현황 문서를 통해 확인된다. 문서에는 ‘80년 5월 22일(목) 코브라헬기 2대 광주로 급파(103항공대장지휘)-벌컨포 운용’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항공지휘관 이모(103대대장)씨가 1995년 5·18특별수사팀에서 진술한 내용과 전교사 작전처의 탄약보급현황(80년5월) 문서를 종합하면 벌컨포 1000발이 소모(사격)됐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103항공대장이자 코브라헬기 조종사 이씨는 검찰에서 “22일 점심께 광주로 출동 명령을 받았고, 모든 지시는 전교사의 지

시를 받으라고 했다. 20mm 벌컨포 실탄 500발을 적재한 코브라 2대를 차출해 저의 인솔 아래 내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벌컨포 실탄 최대 적재량은 750발이지만, 500발이 비상대기시 적재하는 분량”이라고도 진술했다.

광주에 투입된 코브라 헬기 2대는 불과 하루만인 23일 전교사로부터 20mm 벌컨포 1500발을 추가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교사 작전처 탄약보급현황 문서에는 5월 23일 항공대에 20mm 벌컨포 1500발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기록돼있다.

항공대장 이씨는 당시 검찰에서 “김순현 전교사 전투발전부장(준장)으로부터 22일 광주천을 따라 벌컨포, 24일 11여단장(최용 준장)으로부터 산(山)에 있는 폭도를 향해 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벌컨포 사격명령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1980년 5월 24일께 나주시민이 광주 남구~남평 구간 한두재에서 습득한 벌컨포 탄피 3점과 1980년 5월 말 봉주초(봉선동) 인근 논에서 벌컨포 탄피 3점을 주위 보관하던 시민이 지난 8일과 22일 5·18재단에 기증하면서 항공대장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명됐다.

정수만 전 5·18민주유공자 유족회장(5·18연구소 연구원)은 “코브라 헬기 2대의 탄약 반납기록은 어디에도 없고 벌컨포 탄피는 속속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심스러운 대목은 코브라 헬기 발사속도가 분당 750발임을 고려할 때 과연 1000발, 2500발만 쏘았느냐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이것이 5·18 軍 탄피” 23일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한 시민이 1980년 5·18 직후 지금의 서진여고 부근에서 주운 것으로 M 60기관총 탄피로 추정되는 탄피 문치를 들여보이고 있다. 5·18재단은 지난 20일 벌컨포 탄피 3점, 40mm 고풍유탄 탄피 1점, M 60기관총 탄피 40점을 추가로 기증받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5주년 | 호남예술제 62주년 기념공연  
 2017 트리오 광주공연  
**정명화 손열음 신지아**  
 2017. 3. 28(화)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주최 광주일보·아시아문화 | 문의 (062)220-0541 | 예매 티켓마루 1588-0766

## 특검, 이대로 문 닫나

국회 처리 무산... 황교안 연장 요청 승인 않으면 28일 종료

박대통령 기소중지할 듯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을 끝내 무산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현직 검사 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제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등 26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관심이 쏠렸던 특검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야 4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법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고 거부했다.

특검법 개정 불발에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박 특검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특검 수사는 오는 28일 종료된다.

이처럼 특검 수사 시한이 닳게 남은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을 둘러싼 특검팀과 청와대의 협력이 별다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해 대면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검팀은 또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응 낙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상 집행 불응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불복해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로 기소중지 결정해 탄핵심판 결론 후 또는 퇴임 후 기소 여부를 남겨둘 것으로 보인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박 대통령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임기를 마치지 퇴임해 전직 대통령 신분인 뒤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중지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이 헌법에서 전직으로 신분이 바뀐 후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24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또 정유라 씨의 체포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내일 ‘100만 촛불’ 다시 타오른다

광주·전남 5000여명 상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특검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는 이번 주말(25일)에도 서울 도심 광장에서 촛불집회가 열린다. <관련기사 7면>

이번 집회에는 광주·전남에서도 5000여명이 ‘탄핵버스’를 타고 상경해 동참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27일)과 특검 수사기간 종료(28일) 직후인 3·1절에도 도심 대규모 집회 대결이 예고됐다.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시민단체 모임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

동)은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달 25일과 내달 1일 열리는 제17·18차 범국민행동(촛불집회) 계획을 발표했다. 퇴진행동은 25일 열린 17차 촛불집회 제목을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로 정했다. 박 대통령 사퇴와 현재의 신속 탄핵, 특검 연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퇴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농단 연루 재벌 총수 구속 등을 요구한다.

퇴진행동은 내달 1일에는 18차 촛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10월 29일 1차 촛불집회 후 처음으로 주중에 열리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될 전망이다.

/김현영기자 young@연합뉴스

## 금요일엔 4시 퇴근 ‘가족과 함께’

정부,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10면>

정부는 23일 정부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新 팟유람

경기도 미술관·박물관 투어 ▶18면

김여울 기자 오키나와 캠프 가다

KIA 팟, 승리를 부르는 투수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사랑합니다. I LOVE 장성  
 Yellow City Jangseong  
 사계절 노란 꽃과 나무가 가득한 희망의 도시 장성입니다.

옐로우 시티 Yellow City  
 장성군 Jangseong